

어린이 불서가 뜨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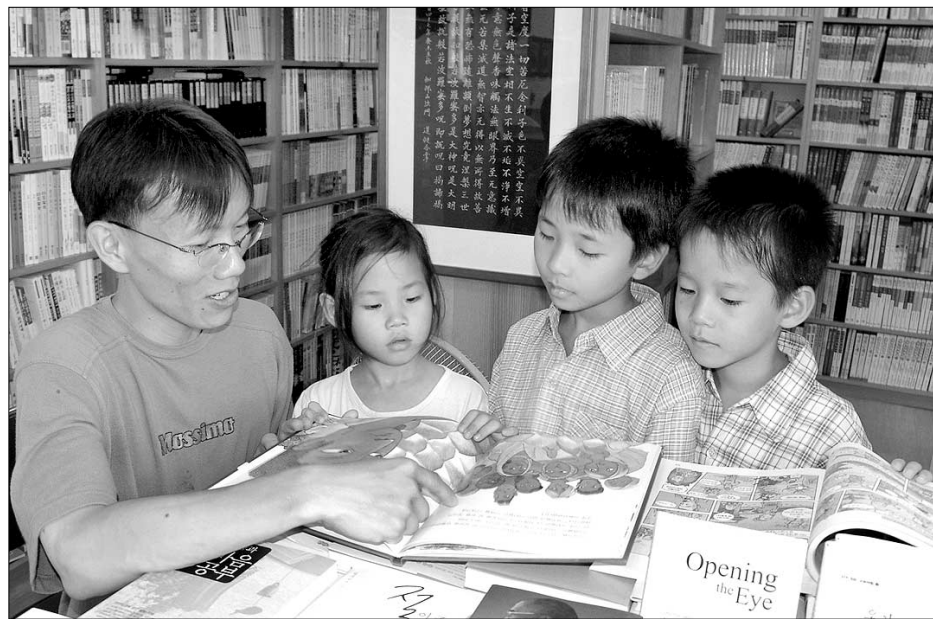
최근 10개월 20여종 선보여

지난 4~5년 동안 일년에 고작 서너 권 출간돼 '포고 불토지'로 인식됐던 어린이 불서 시장이 변화의 조짐을 보이고 있다. 지난해 말부터 불기 시작하던 '어린이 불서 붐'은 올해까지 이어져 최근 10개월 사이에 20여 종의 책이 쏟아져 나왔다. 지난해 10월에는 부처님의 전생 이야기를 담고 있는 <자타카>를 어린이들이 쉽게 읽을 수 있도록 꾸민 <나쁜 녀석>(어린이중앙)과 순천대 만화예술학과 교수인 윤승운 화백의 <항기로운 부처님 나라> <아름다운 부처님 나라>(동쪽나라), 티베트의 정신적 지도자 달라이 라마의 일대기를 그린 <달라이 라마>(꿈동산) 등이 선보이는데 이어 올해 부처님오신날을 앞두고도 다양한 어린이 불

서가 출간됐다. 아동문학가 김영만 씨가 글을 쓴 <마음을 다스리는 어린이 법구경>(바른사)을 비롯해 <꼬마 판다의 깨달음>(BB아이들), <성자가 된 동지개꾼>(푸른나무) <만화로 보는 부처님 전생이야기>(운주사) <선사들의 삶과 깨달음>(솔바람) 등이 그것이다.

일반 출판사가 주춤 아쉬움

일반 출판물의 '명상 붐'을 반영하듯 틈틈한 스님의 법문을 만화로 꾸민 <미소 짓는 두 스님>(파랑새어린이)과 <틱낫한 스님이 들려주는 마음 속의 생들>(계림북스쿨)도 선보였다. 또한 1965년 출간된 <세계불교동화>(큰나)와 <어린이법구경>(말인), 2001년 발간된 <성철 스님과 모교동자> 등도 새 단장해 어린이들을 찾았



이번 주말에는 자녀의 손을 잡고 다양한 어린이 불서가 기다리고 있는 서점에 가 보자. 임복규(안양시 호계동) 씨가 조카들과 함께 조계사 봉향각에서 어린이 불서를 고르고 있다. 사진=고영배 기자

다. 이 밖에 선(禪) 만화 <차나 한잔 마시게>(문자향)와 <부처와 돼지> <그래서 어땠단 말이고>(들녘) 등도 출간돼 눈길을 끈다.

비용·노력 2~3배 더 들어

운주사 김시열 사장은 "그동안 어린이 불서가 다양하게 개발되지 않은 탓도 있지만, 불교의 설화나 부처님의 생애 등은 어린이 책을 만들기에 더할 나위 없이 좋은 소재"라고 말한다. 하지만 어린이 불서 시장에 새로운 활력을 불어 넣고 있는 주제가 대부분 일반 출판사라는 점은 아쉽다. 어린이들에게 불교적 심성을 길러주는 것이 어린이 불서의 큰 역할 중 하나라고 할 때, 일반 출판사들이 펴내는 책들은 불교적 소재를 '차용'하는 수준에 머물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이러한 현실에서도 불교전문 출판사인 도서출판 운주사와 솔바람의 어린이 불서 출간 의지는

높이 살만하다. 운주사는 지난해 1월 <아름다운 우리 사찰 13가지 숨은 이야기>를 펴낸 데 이어 지금까지 <만화로 보는 부처님 전생 이야기>, <부처님 지혜를 배우는 불교우화 41가지> 등의 만화책을 펴냈다. 솔바람도 <마음을 밝혀주는 60가지 이야기>와 <선사들의 삶과 깨달음>을 펴내는 등 활발한 출판활동을 보이고 있다.

중단 차원 제작 지원 절실

출판 전문가들은 "어린이 불서는 불교의 미래를 이끌어 갈 세력불자를 키우는 토양이라는 인식을 출판사와 종단, 불자 부모 함께 공감해야 한다"고 입을 모은다. 이와 더불어 중단차원의 불서 제작 지원, '올해의 어린이 불서' 선정 등 어린이 불서 출간을 이끌어 낼 수 있는 분위기를 조성해야 한다는 것이 관계자들의 한결같은 제언이다.
여수령 기자 snoopy@buddhapia.com

새로운 책

- <더불어 숨쉬는 불교>(향과 스님 지음, 문예마당, 1만2천원)=통도사 선덕 향과 스님의 법문집. 지난 10여년 간 행한 법문과 경전 강설, 선 수행 지침 등이 담겨 있다. 신도들이 스님의 회갑을 맞아 법공양으로 펴낸 이 책에서 스님은 "쉽 없는 기도와 설법 속에서 부처님을 뵈도록 하라"고 당부한다.
- <오가(悟家) 법상>(제운 스님 시집, 고아침, 7천원)= '놓아 버리면 되는데/ 떨치면 되는 줄 알면서/ 떨치지 못하고 놓지 못하니/ 언제까지나 저 아득한 부처의 자태만/ 기억하고 기다리겠는가?'(부처를 찾아) 卍 20여년 동안 달마를 그려온 선화가 제운 스님(일산 정광사 주지)이 선방에서 수행하며 틈틈이 쓴 시를 모은 시집 <오가 법상>을 펴냈다. 스님은 "한 편의 시가 사람의 마음에 회향을 줄 수 있기를 바란다"고 말한다.
- <살아 있는 한자 교과서>(정민, 박수민, 박동욱, 강민경 지음, 휴머니스트, 전2권 각권 1만5천원)=창피(猖披)하다, 간담(肝膽)이 서늘하다, 면목(面目)이 없다... 우리의 언어생활에서 한자는 떼려야 뗄 수 없는 존재다. <살아 있는 한자 교과서>는 일상적으로 자주 쓰이는 한자가 표현들의 유래와 본뜻을 자세히 설명함으로써 한자를 쉽게 익힐 수 있도록 꾸민 책이다.

"효 가르치는 것은 종교의무"

■ 어린이 불서 15만권 법보시 동춘스님



그동안 어린이를 위한 불서를 제작, 법보시해 온 조계종 원로의원 동춘스님(부산 해미사)이 최근 <엄마, 아빠 고마워요>를 펴냈다. 스님이 제작 경비를 부담해 발간한 이 책은 조계종 분림사를 비롯, 어린이 불회를 열고 있는 군부대와 불교어린이집, 종합학교 등에 15만권이 무료로 배포된다. 자라나는 어린이들에게 효 사상을 널리 알리기 위해 책을 무료로 보급하고 있는 스님은 그동안 <부처님이 들려주는 효 이야기>(2000년), <밤불이와 열정의 효도떡떡>(2002) 등을 각각 20만부씩 법보시했다. 스님은 "인간의 근본을 일깨우는 효도를 가르치는 것이야말로 오늘날 종교의 의무라고 생각한다"고 어린이 불서 출간 의의를 밝힌 바 있다. 이 책은 <부모은중경>을 그림과 함께 읽기 쉽게 꾸민 '한글세대를 위한 부모은중경'과 부모님의 사랑을 느낄 수 있는 일화를 소개하는 '부모님의 크나큰 사랑'으로 이루어져 있다. (02)2011-1876

엄마, 아빠 고마워요 양태서 엮음 | 안준석 그림 | 조계종출판사 | 비매품



실상사 정도상 지음 | 문학동네 | 8천원

전북 남원 지리산 한 자락에 자리 잡은 부처님 나라. 발돋움할 한창 걸다 발 한가운데서 문득 마주하게 되는 그 나라에는 상처받은 영혼들의 발길이 끊이지 않는다. 웅장한 전각도, 요란한 법회도 없는 그곳이 뜻사람들을 잡아끄는 이유는 무엇일까. 방향하는 영혼들의 가슴 속에 사는 이유는 무엇일까.

소설가 정도상 씨의 연작소설 <실상사>는 그 이유를 5편의 이야기 속에서 형상화하고 있다. '봄 실상사' '여름 실상사' '가을 실상사' '겨울 실상사' '내 마음의 실상사' 등 다섯 편으로 이뤄진 소설에는 가슴속에 상처를 지닌 채 실상사를 찾는 이들의 각기 다른 이야기가 담겨있다.

실상사에서 마주친 상처입은 영혼들

작품에서 실상사는 이루지 못한 사랑을 되새기는 회한의 장소이자 심신이 파헤쳐진 이의 아픔을 어루만지는 위로의 공간이다. 본래의 자아와 마주하는 뼈아픈 자기 확인의 거점도 되기도 한다. 뭉치 모를 상실감으로 침묵에 빠져 하구층에 사람들, 과거-현재-미래를 넘나드는 괴로움 속에서 삶의 방향을 상실한 사람들은 실상사를 거쳐 가며 자기 성찰의 계기를 마련하게 되는 것이다.

작가는 5편의 허구를 통해 진어실상을 찾아가는 자기 탐구에 젖어든다. 그 가운데서 '사(死)는 것은 사(生)는 것이었다'는 메시지를 전달하기도 하고, 삶의 단계를 심우도의 과정으로 풀어내기도 한다. 독자들은 각기 다른 이들의 답지 않은 이야기 속에서 오늘을 사는 우리의 자화상을 마주하게 된다.
강신재 기자 thaiswh@buddhapia.com

금주의 베스트도서 10

책방 역시아문집

| 순위 | 도서명 | 저·편자 | 출판사 |
|----|------------------|-------|---------|
| 1 | 홀로 사는 즐거움 | 법정 스님 | 샘터 |
| 2 | 인연법과 마음공부 | 해곡 스님 | 흐림 |
| 3 | 스님이야기 | 지록 스님 | 여시야문 |
| 4 | 마음 부처가 사는 나라 | 정화 스님 | 이른아침 |
| 5 | 텐진빠오의 마음공부 | 텐진빠오 | 열림원 |
| 6 | 가장 행복한 공부 | 정화 스님 | 시공사 |
| 7 | 하루밤에 읽는 불교 | 소운 스님 | 랜덤하우스중앙 |
| 8 | 불교가 정말 좋아하는 불교우화 | 이용범 | 수회재 |
| 9 | 예세조결 | 예세조결 | 김영사 |
| 10 | 백일법문 | 성철 스님 | 장경각 |

도서 안내: (02)737-0695

최초로 과목을 친 바보로인 반야심경!
전강 대선사님의 인가제자인 대원 문계현 선사님께서 과목을 반야심경 내면에 흐르는 뜻을 밀밀하게 밝혀놓고 거침없는 송으로 들려주었다.

02-522-0122
www.zenparadise.com

"새는 지붕" 때문에 고민하십니까?

가장 싸게 시공해 드립니다
자! 이제 칼라지붕으로 해결하세요!!

최신 기와강판, 스테형강판
슬라브, 사질, 교회, 창고, 공장, 가정집(전문시공)

가장 저렴한 가격에 제일 튼튼하고 예쁘게 단 하루만에 공사완료! (전국 어디서나 출장시공해 드립니다)

서울: 011-379-0667
강원도: 010-3044-9708
경기도: 019-690-4018
충청도: 011-327-7697
경상도: 016-9294-8580
전라도: 011-368-0667

조은칼라지붕공사

이젠 1시간 만 투자하면 완벽한 절이 됩니다!!!

절을 낚차게 잘하는 법

(츄츄츄 츄츄츄의 최첨단 건강 비법 공개 수련회)

- 입은 숨을 쉬는 곳이 아니고 코입니다.
- 세치의 혀를 잘못 눌러 망신 당하는 것 보다 입 벌리고 숨을 쉬어 병나고 망하는게 더 무섭다.
- 절, 영불, 독경, 주력 수행하고, 노래 할때 어깨, 가슴을 들먹거리며 입으로 숨을 들이 쉬는 것은 수행이 아니라 병고액년의 어리석은 짓이다.

○합장하고 일어설 때 저절로 단전 호흡이 되어져 우주의 밝은 에너지가 북차는 경지!!!

- 절할 때 침이 빠지고 땀나고, 피곤하고, 지치고, 정신 사납고, 발, 무릎, 허리 아픈게 호흡을 잘못한 것
- 점적에서 숨을 내쉴때 날숨이 길어져 나쁜 기운은 순간 빠져 나가고 연동된, 쾌락 호르몬인 도파민은 끊임 없이 나와서 경쾌하고 행복하고 환희로우며 언제나 생생한 몸과 마음의 건강을 체험하는 경지!!!
- 혈액거리며 입으로 숨을 쉬는 역호흡은 불행과 병고액년의 직접 원인!!!
- 상기병, 냉병, 소화불량, 당뇨병, 고혈압, 비만, 디스크, 관절염, 신경통, 아토피, 비염, 축농증, 우울증, 불면증, 감기몸살, 만성피로, 자궁근종, 변비, 자폐증, 지메 환자는 100% 입으로 숨을 쉬는 역호흡으로 찬바람, 먼지, 세균, 병원균이 직접 입으로 들어와 몸이 차가워지며 생인병의 원인! 공부, TV 시청, 컴퓨터, 잠잘 때 입벌리고 있으면 바로나 병자, 불행한 사람이 되어가는 과정이니 빠른시일내에 수련에 동참하여 치유하십시오.

★오름에 맞춰 절하는 수행으로 단시일에 극복된 사례가 대단히 많습니다★

▶수련일시: 매주 화요일 낮 2시, 저녁 7시
▶수련비: 입회비(만원), 수련비(2만원, 3회 교육 가능)
▶오시는 길: 지아침 5, 7호선 군자전철역 4번 출구에서 전포방향으로 100M 이상스거리 4층

법왕정사 서울 군자법당
☎ 전화: (02)456-4994.0035 http://cafe.daum.net/sorisan

"숨을 낚차게 잘 쉬는 법" 책 9월 출간 예정

영험량

픽미승

불보살님 가피력 받는사람

참회하는 마음
용서하는 마음 > 갖는사람

누구나 4차원 파장을 받을 수 있으며 음(陰)을 양(陽)의 기운으로 바꾸어 주면 육체, 마음 고통에서 벗어납니다.

- 중병은 70~80% 4차원 장애
- 육체, 마음 고통은 4차원 장애
- 기타, 인생사 4차원 장애

▶인연기도로 기쁨을 받으시려▶

나태 경험에 있는 사람 둘 중에 한사람이 고통을 받고 가족에게 영향을 주며 기도롭게 새로운 삶을 살아가고 있으며, 물질, 금전, 애착, 그리움, 미움을 갖고 살아가면 사후에 구원을 떠도는 파장이 되어 직계 가족에게 영향을 준다

해원사 조하루, 18일 법회, 신중참회기도
031-736-3734 · 732-3790

관절염

자생환(自生丸)

관절염 류마티스 초기 퇴행성관절염 활액순환장애 디스크

관절염은 참 견디기 힘든 병입니다. 뼈마디의 통증은 통증대로, 약을 먹으면 위장장애 때문에 이증으로 고통을 합니다. 자생환으로 근본적인 치료를 해보세요

상태가 심한 분은 3개월 이상 복용해야 합니다.

1개월분 ₩180,000
2개월분 ₩320,000

발명자: 민속의화학사 권재우 동(경남 산청)
주문 및 상담전화 (055)972-4054

관절을 선도하는 기업
骨仁製藥(株)